

오심 인정 대신 특별상 급조

국제펜싱연맹 제안...대한체육회 수용키로



국제펜싱연맹(FIE)이 끝내

한국팀의 항의를 기각했다.

FIE는 지난 31일(현지시각)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 팀의 '멈

춘 시간' 항의에 대한 기술위원회(테크니컬

디렉터)의 결정을 승인한다고 발표했다.

FIE는 "기술위원회는 공식적인 절차에 따

라 규정을 확인하고 관련자의 진술을 분석

해 한국의 항의를 기각했다"면서 "규정에

따라 최종 결정권을 가진 심판이 브리타 하

이데만(독일)의 득점을 인정했다. 적절한 결

론이 내려졌다고 승인한다"고 밝혔다.

신아람은 펜싱 여자 에페 개인전 준결승

에서 연장전 1초를 남기고 세 번의 공격을

막아냈으나 네 번째 공격을 허용해 패했다.

네 번의 공격이 이뤄지는 동안 '1초'는 줄어

들지 않았다.

이날 1시간 가까운 논의를 거친 기술위원

회(테크니컬 디렉터-DT)는 "국제펜싱연맹

■ 왜 피스트 떠날 수 없었나

선수 떠나면 경기 종료

신아람이 2012 '멈춰진 시계' 때문에 아예 개

인전 준결승에서 연장전 1초를 남기고 명백한

오심으로 폐를 놓친 신아람은 선수단

이 공식적으로 항의하는 동안 피스트 한쪽

에 걸쳐야 눈물을 흘렸다. 폐배가 선언된 직후부터 한 시간이 넘도록 무대에서 내려오지 않았다.

암전된 경기장 한가운데 환히 불을 밝힌 피스트에서 동료의 위로도 받지 못한 채 앉아있는 마음은 누구보다도 외로웠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신아람은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다.

규정상 선수가 피스트를 내려오면 경기가 종료된 것으로 간주하고 바로 다음 경기에 돌입하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심판의 판정에 의해 3~4위전으로 떨어진 신아람은 바로 경기에서 나서야 했다. 자연스럽게 폐배를 인정하는 모양새가 된다.

만약 이를 거부하고 경기에 출전하지 않으면 기술위원회는 엘로카드를 주고, 재차 출전을 거부하면 블랙카드를 내린다. 블랙카드를 받으면 실격과 함께 이후 한동안 경기에 나오지 못한다. 남은 여자 에페 개인전에서도 출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신아람은 끝까지 피스트를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

운영요원들이 신아람을 대기실로 보내려 할 때 '노(No)'를 외치며 기립 박수로 격려하던 관중들이 그나마 고독한 신아람에게 그나마 희망을 줬다.

'우생순'은 계속된다

전 노르웨이와의 경기에서 조효비가 수비수 사이로 숨을 시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FIE)의 테크니컬 규정에 따르면 남은 시간이 얼마나지 결정할 권한은 심판에게 있다"며

는 답변을 내놓았었다.

FIE는 "시계에 문제가 있거나 타임키퍼가 실수했을 경우 심판은 직접 얼마나 시간이 남았는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타임키퍼는 심판의 '알레(시작)' 신호에 맞춰 시계가 다시 작동되도록 조작하는 진행 요원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시계가 1초에서 멈춰 있는 동안 심판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 다시 공격할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이다.

심판이 실수를 저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타임키퍼가 이를 지적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하지만 타임키퍼의 자격조건에 대한 규정은 없다.

한편 이번 논란에 대해 FIE는 자신들의

실수를 사실상 인정하면서 "신아람의 스포츠 정신을 높이 평가해 특별상을 주겠다"

고 대한체육회에 제안했다.

대한체육회 박용성 회장이 이를 받아들여

펜싱 경기가 끝나는 8월5일 이전 시상이 이뤄질 계획이다. /연합뉴스

여덟 줄 몰라 하는데 뭐라고 할 수가 없었나"고 답답해했다.

더 큰 문제는 잘못된 상황임에도 아무도 이를 바로잡으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기술위원회는 "테크니컬 규정에 따라 기술위원회나 심판위원회는 심판의 판정을 바꿀 권리가 없다"고 발뺌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선수는 심판이 규정을 잘못 적용하는 경우에만 항의할 수 있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아무런 구제를 받을 수 없다.

한편 이번 논란에 대해 FIE는 자신들의

실수를 사실상 인정하면서 "신아람의 스포츠 정신을 높이 평가해 특별상을 주겠다"

고 대한체육회에 제안했다.

당초 한국은 중국 선수들의 의도적인 저

주기 문제를 제기했으나 BWF에서는 한국

선수들 역시 이기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세계랭킹 1위인 왕사울리-위양 조는 A조

2위를 차지해야 결승 전까지 자국 동료인 텐

정-자오원레이 조를 만나지 않기 때문에 정

경은-김하나(세계랭킹 8위) 조를 상대로 일

부리 영성한 플레이를 해 관중들의 애수를

받았다.

일부러 서비스를 잘못 넣어 점수를 끼며

는가 하면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않아 점수를

를 허용하는 활동한 장면을 연출하며 0-2

(14-21 11-21)로 완패했다.

심판이 직접 코트로 들어와 중국 선수

들에게 똑바로 경기에서 나설 것을 주문하는

보기 드문 장면도 연출됐다.

하지만 외신들은 중국은 물론 한국 선수

들도 마찬가지로 승리에 대한 열의를 보이

배드민턴 저주기 파문

자국팀과 대결 피하려 일부러 패배...중국·인니도 징계 위기



2012 런던올림픽 배드민턴에
서 불거진 '저주기 파문'으로 중
국은 물론 한국과 인도네시아까
지 국제연맹의 징계를 받을 위

기애 처졌다.

세계배드민턴연맹(BWF)은 배드민턴 여
자복식 4개조, 8명을 대상으로 1일 오후(현
지시각) 청문회를 열어 징계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AP통신이 보도했다.

고의 폐배 의혹이 불거진 왕사울리-위양
(중국) 조와 정경은-김하나(한국) 조의 조
별리그 A조 경기, 하정은-김민정(한국) 조
와 멜리아나 자우하리-그레시아 폴리(인도
네시아) 조의 조별리그 C조 경기가 조사 및

징계 대상이다.

당초 한국은 중국 선수들의 의도적인 저
주기 문제를 제기했으나 BWF에서는 한국

선수들 역시 이기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세계랭킹 1위인 왕사울리-위양 조는 A조
2위를 차지해야 결승 전까지 자국 동료인 텐

정-자오원레이 조를 만나지 않기 때문에 정

경은-김하나(세계랭킹 8위) 조를 상대로 일

부리 영성한 플레이를 해 관중들의 애수를

받았다.

일부러 서비스를 잘못 넣어 점수를 끼며

는가 하면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않아 점수를

를 허용하는 활동한 장면을 연출하며 0-2

(14-21 11-21)로 완패했다.

심판이 직접 코트로 들어와 중국 선수

들에게 똑바로 경기에서 나설 것을 주문하는

보기 드문 장면도 연출됐다.

하지만 외신들은 중국은 물론 한국 선수

들도 마찬가지로 승리에 대한 열의를 보이



'저주기 논란'이 벌어진 31일(현지시각) 영국 런던 웨블리 아레나에서 열린 대회 여자복식

조별리그 중국(왕사울리-위양 조)과 한국(정경은-김하나조)의 경기에서 심판장이 중국 선

/연합뉴스

계랭킹 1위인 왕사울리-위양 조는 A조 2위를 차지해야 결승 전까지 자국 동료인 텐

정-자오원레이 조를 만나지 않기 때문에 정

경은-김하나(세계랭킹 8위) 조를 상대로 일

부리 영성한 플레이를 해 관중들의 애수를

받았다.

일부러 서비스를 잘못 넣어 점수를 끼며

는가 하면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않아 점수를

를 허용하는 활동한 장면을 연출하며 0-2

(14-21 11-21)로 완패했다.

심판이 직접 코트로 들어와 중국 선수

들에게 똑바로 경기에서 나설 것을 주문하는

보기 드문 장면도 연출됐다.

하지만 외신들은 중국은 물론 한국 선수

들도 마찬가지로 승리에 대한 열의를 보이

판정 이의신청, 돈 내야 한다고? 무분별 제기 막으려 보증금 받아

2012 런던올림픽에서 감독이 판정에
불복할 시 이의 제기를 하면서 심판에게

돈을 건네는 장면이 종종 연출되고 있다.

남자 기계체조 단체 결승전에서 일본

대표팀이 서면과 함께 현금을 심판에게

건네면서 이의 제기를 할 뒤 뒤에 제점 결과

가 뒤집히는 장면이 방송되자 현금의 용

도에 대한 논란이 들끓었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의 제기를 할 때

현금을 주는 것은 무분별한 이의 신청을

막기 위해서이고 불법이 아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올림픽 경기의 운

영권을 각 종목의 국제연맹에 맡긴다. 종

별리그로 이의 제기를 할 때 내는 보증금의

액수는 각각 다르다. 대개의 경우 이의 신

청이 받아들여진다면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지만 기각된다면 돌려받을 수 없다.

한국 대표팀은 별씨 두번 국제연맹에

이의 신청을 하면서 보증금을 냈다.

수영의 안종택 경영대표팀 감독은 박

태환이 자유형 400m에서 실격하자 이의

제기를 하면서 국제수영연맹에 100스위

스프랑에 해당하는 70파운드(약 12만원)

를 냈지만 1차 상소심판 회의에서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신아람은 1시간이